

충남서 고병원성 시...전남도 방역 강화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 확진 판정 위기단계 '주의'서 '심각'으로 상황 가끔 생산자와 전남 사수 상생협약

전남도가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포획한 원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정밀검사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17일에는 가끔 계열화사업자, 생산자단체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전남 사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다 세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협약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강승봉 (주)다슬 대표이사, 김선철 (주)정다운 대표이사, 이창주 (주)사조원 대표이사, 김양길 대한양계협회 전남도지회장, 전영욱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사수를 위해 전남도는 방역체계 구축과 운영에 행정력을 적극 지원한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 농가 책임 방역에 힘쓰며, 정부 방역대책 이행 농가와 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축산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로 차단방역에 나선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장 주도 자율방역과 계열사의 책임 방역이 정착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돼 동물방역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 부지사는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국내에서는 지난 12일 울가를 처음으로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며 "행정과 산업계, 생산자가 긴밀히 협력해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지난 3월 강원 고성 송지호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26일 충남 천안 곡교천 포획 원앙과 전북 부안 고부천 쇠오리 분변에서 검출된 것보다 16일이 빠른 상황이다. 전남도는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를 산란 가끔·토종닭은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하고, 육용오리는 사육 기간 중 2회에서 3~4회로 횟수를 늘린다. 전축종 출하 전 검사, 나주 공산 산란계 밀집단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끔농장(36호) 일제점검, 가끔농장 방사사육 금지,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월 2회에서 매주로 확대 운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지난 겨울철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7개 시·도에 47건이 발생해 731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에선 강력한 선제적 방역 조치로 전년(21건)보다 48%가 감소한 11건이 발생해 3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부산국제관광전 최우수마케팅상

내년 순천만정원박람회 등 홍보

전남도와 전남관광협회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관광전에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코레일 연계 '원패스 관광할인 상품' 등 적극적인 판촉으로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관광협회와 KOTFA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30여 나라 350개 업체 및 기관이 참가했다. 전남에서는 도와 순천, 광양, 담양, 무안, 영광, 함평, 고흥, 화순, 장흥 등 9개 시·군이 함께해 관광객과 여행기자,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롭게 출시된 숙박할인 빅이벤트, 코레일

연계 원패스 관광할인 상품, 호라이즌 시즌 드라이브 투어, 남도문화관광페스티벌, 힐플레이스 투어 상품 등을 적극 소개했다.

특히 관광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관광지 순환버스의 남도한바퀴를 비롯해 드론 라이트쇼(10월 28-29일 목포 노을공원), 대한민국 국향대전(10월 21-11월 6일 함평엑스포공원) 등을 통해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순천에서 개최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집중 홍보해 관심을 받았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올해와 내년에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을 즐길 수 있는 기획상품을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불거리 많고 실속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전남을 방문해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당일 위판 전남 수산물 로켓배송 전국 식탁 오른다

전남도-해수부·쿠팡·목포수협 신선·빠른 유통체계 업무협약

전남도가 지난 14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해양수산부, 쿠팡, 목포수협이 당일 위판 전남 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하고 빠르게 배송하는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송창근 해양수산부 차관,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 김창룡 목포수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차별화된 고품질 수산물의 생산·가공·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쿠팡은 수산물 직매입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에 힘을 보탠다.

목포수협은 쿠팡의 납품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물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전남산 우수 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유통사업에 적극 발굴하고 수산 가공·유통 분야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따라 목포수협에서 당일 위판한 참조기, 갈치 등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쿠팡의 물류망(로켓프레시)을 통해 신선하



고 질 좋은 상태에서 중간에 다시 보관하는 과정 없이 빠른 시간에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그동안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기반 신선 물류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산지 위판장의 판매·유통 역량 제고를 위해 위판장 운영조항과 유통 기업이 협력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위판장 풀필먼트(Fulfillment)'를 추진했다.

박창환 부지사는 "전국 수산 1번지인 전남이 세계적 물류혁신 기업인 쿠팡과 제휴한 당일 위판 수산물 유통망 구축이 전국 성공모델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도내 모든 수협이 산지위판장 풀필먼트 사업에 참여를 지원해 전남지역 수산물의 새로운 판로 개척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정 전남 한돈산업 육성 힘 모으자"

나주시 한돈인 한마음대회

한돈농가 화합·소통의 장인 제5회 한돈인 한마음대회가 14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려 '청정 전남 한돈산업 육성'을 결의했다. '한돈'은 국산 돼지고기의 새 이름으로 하나가 돼 발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단체인, 한돈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우수 한돈인 표창, 감사패 전달, 결의문 낭독,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서학수 여수시지회장 등 3명이 전남 한돈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한마음대회가 한돈인들이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축제의 장이자, 전남 한돈산업 대도약을 알리는 빛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며 "축산물 생산액 5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등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가 필요한 만큼 농협중앙회와 정부에 사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으니, 국회와 축산농가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관철되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오재관 대한한돈협회장도 결의문을 통해 "깨끗한 농장 가꾸기를 통해 양돈장의 냄새를 저감, 도민과 함께 청정 전남 한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4년 연속 수상

신안·고흥·영암 3농가 우수상

충북 음성에서 열린 '제25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신안군, 고흥군, 영암군 농가가 우수상을 수상, 4년 연속 수상 영예를 안았다. 한국종축개발위원회나 한우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는 전남 31농가를 비롯해 전국 292농가가 참여했다.

평가는 가죽, 머리, 발굽,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의 체중인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 육방 등 종합적으로 이뤄졌고, 대회 첫날부터 체외 및 외모심사, 도축, 최종평가 순서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에 신안 윤성숙 농가,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상에 고흥 박태화 농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에 영암 서승민 농

가 선정됐다.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울산시에서 차지했다. 상위 10위 안에 전남산 한우가 3마리가 입상해 전국 명품한우 위상을 재확인했다.

전남 입상 한우의 도체중은 약 600kg으로 전국 일반 한우 평균(414kg)의 1.4배에 달했다. 또 경매 가격이 kg당 4만 원으로 일반 거세우 경매가격(2만1000원)의 1.9배에 이르는 등 마리당 약 2500만원에 판매됐다.

이는 전남도가 한우 개량에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생산·선별해 도내 한우 농가에 공급하는 '한우 송아지브랜드' 사업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는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발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1993년부터 개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강화

한달간 해수부 등과 합동단속

전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

도선 16척과 어업감독공무원 42명이 투입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 양식시설 설치,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어업 우선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어업허가 취소, 어

업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과 불법어업 사전 차단에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박영재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무면허 김양식 등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법어업에 중사하는 어업인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